

지방권 광역급행철도(x-TX), A to Z 알려드립니다

- 12일 지자체 설명회... 지역 맞춤형 노선 등 추가사업 발굴 위해 소통 나서

-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(x-TX)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,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선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(회의실)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.
 -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가 2월 28일 'CTX 거버넌스'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,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.
-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(1.25)에서 발표한 「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」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, 경상북도, 충청북도, 대구시, 대전시,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 -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(180km/h)로 대심도(40m이상)를 통과하는 x-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,
 - 지자체가 x-TX 사업을 발굴 및 추진 시 제3자 공고, 협상 등 지원가능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.

-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, 지자체가 x-T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지원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.
- 업계대표로 참석한 SOC포럼*은 민자철도사업 추진사례로 신안산선 2단계 (여의도-서울역)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하고, 지자체에서 x-TX 추가사업 발굴 시 사업의 중요성, 업계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.

* 건설사·금융사·법무법인·회계법인 등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

- 국토교통부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은 “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대로 선도 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(CTX)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정상 추진 중이며 다른 권역도 각 지자체에서 x-TX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 중” 이라면서,
- “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광역급행철도를 발굴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지자체의 x-TX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	문희선 (044-201-3988)
	철도투자개발과	담당자	사무관	조범현 (044-201-409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□ **행사 개요**

- (일 시) 3.12(화) 14:00~17:00
- (장 소)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(대전역 서광장) 5층 회의실(사군자실)
- (참석대상) 지방자치단체 민자철도 관련 업무 담당자 등
- (주요내용) 정부의 x-TX 추진 방안 소개, 철도업무 및 민자철도 추진 절차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(발굴)에 필요한 사항 설명

□ **세부일정**

시 간(잠정)	행 사 내 용	비 고
14:00~14:20	개회	참석자 및 행사 소개
	인사말씀 * x-TX 추진 방안 소개	국토교통부
14:20~15:50	프로그램 ① * 철도정책 및 철도업무의 이해	KOTI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
	프로그램 ② * 민자철도사업 추진 절차 및 공단역할	국가철도공단
	프로그램 ③ * 철도민자사업 추진사례를 통한 시사점	SOC포럼
	프로그램 ④ *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	KOTI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
15:50~16:50	질의응답 및 종합토론	
16:50~17:00	폐회	